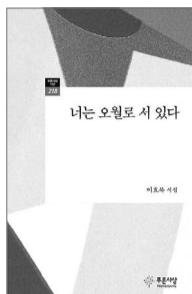


“오월 희생자들의 문학적 ‘서사 기록’이죠”

장성 출신 이효복 시인 네번째 시집
‘너는 오월로 서 있다’ 폐내
역사적 공간 찾아 체험하고 기록
광주서 12일 출판기념회 개최



“1980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시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론 트라우마로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요. 그리고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월 항쟁 당시 희생됐거나 참여했던 수많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을 호명하고 그들의 서사를 문학적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효복 시인이 최근 네 번째 시집 ‘너는 오월로 서 있다’(푸른사상)를 냈다.

오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가 투영된 작품집이다.

시인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기억투쟁”的 관점에서 작품집을 폐내게 됐다”며 “오월을 체험하고 오월 현장에 살았으나 잊힌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 시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면 현실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기 마련이다. 기억을 환기시키고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방편은 기록이라는 차원의 ‘기억 투쟁’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작품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그 희생과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잊지 않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1980년 오월의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진 거리를 보며 공포에 시달렸고 그날의 통행금지를 보았으며, 새

벽하늘의 잠혹함을 보았다”며 “그때 나이 만 스물셋, 광천교와 금남로의 분수대 등은 기억의 공간”이라고 회고했다.

이번 작품집을 폐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를 쓰기 위해 그는 역사적 공간을 다시 차분히 둘러봤다. 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및 금남로, 학동 참사 현장, 목포경찰서, 고하도, 팽목항 현장을 답사했다. 또한 하제 팽나무에서의 시낭송 참여를 비롯해 무등산과 소쇄원, 장성 죽립서원, 장성 갈재 옛길 등을 수없이 답사했다. 고문서를 찾아 읽고, 뜻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계율리하지 않았다.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 역사적 공간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했어요. 무엇보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현장을 밟아하고 답아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18 유족, 세월호 유가족 등을 만나 증언도 들었죠.”

자료 수집이나 취재보다 중요한 것은 시를 쓰고

자하는 열망일 것이다. “일상을 살아오면서 부대끼고 공감한 내용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말에서 그가 추구하는 시 세계의 단면이 읽힌다.

“무등 데래 충중이 곱게 머물러/ 가을이 들었고 / 무성던 한여름 떠약볕/ 피땀 흘린 대지의 황화, / 찬사를 보낸다/ 자연이 피워낸 꽃/ 그 앞에 마음 모아 기원한다/ 내가 핀 꽃 또한 그 꿈에/ 기름진 옥토/ 그 속에 모아져 하나가 된다/ 자연의 소리 듣는다/ 내가 없는 나의 소리/ 홀로 의연하다/ (내가 핀 꽃)”

‘내가 핀 꽃’은 들판에 홀로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묘사한 시다. 이상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심상과 기원이 꽃이라는 대상에 투영됐다.

“예쁜 꿈, 이 지구상에 가장 거대한 꿈을 가진/ 오월의 은행나무 김향득, 너는 가지 않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월을 지키고 있다...”

‘5·18 소년 시민군’ 출신 사진가인 김향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김향득은 5·18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지난 10월 향년 6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월 은행나무로 서는” 모습은 하나 되는 공동체의 세상을 상징한다.

시인은 “지난 10월에 김향득과 예제하의 부음을 들었다”며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작품집에는 시인 고향인 장성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 들판유공자 이영규 선생, 역사 속 인물들을 바탕으로 구현된 시들도 다수 담겨 있다. 그가 5월, 역사 등을 시의 주 소재로 치용하는 것은 “문화는 본질적으로 진실을 증언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무관치 않다.

이 시인은 고등학교 때 시인 양성우에게 국어를 배웠고 작은별 문예반에서 활동했다. 1976년 ‘시문학’에 ‘눈동자’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시집 ‘달밤, 국도 1번’,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부부 시집 ‘풀빛도 물빛도 하나로 만나’를 폐냈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오는 12일 오후 6시 서구 풍암동 영빈관 한정식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유 확장하는 ‘겨울 인문학’

광주시민인문학 2월 강좌 오늘 개강…26일까지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가 2월 강좌를 연다. 오는 3일 개강하는 제135회 강좌는 오는 26일까지(화요일 제외)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먼저 월요일(9일, 23일) ‘은유의 철학’ 시간에는 서명원 교수가 ‘마크 존슨-인간의 도덕’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금요일(6일, 20일) ‘하루기의 세계’ 시간에는 신광용 이사장이 ‘1973년의 핀볼’을 주제로 이야 기와 강의를 한다.

일요일 ‘영화를 사유하는 모임’(월 1, 2회)은 당

일치기로 진정한 이사 등이 ‘광주극장에서 카페에 서 토크!’를 펼친다.

한편 명혜영 대표가 진행하는 명혜영인문교실

(오후 7시 월, 목요일 제외)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된다. ‘소설주제탐구-스즈키 유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들뢰즈 철학강독-차이와 반복’, ‘일본문화산책-NEW일본문화 A-Z까지’, ‘영화인문학-영화 감상 & 키워드 토크’, 에세이 창작반-인생을 쓰는 시간 & 공감 토크’, ‘미술 독서회-빛과 혼의 화가 램브란트’ 등이 예정돼 있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이사장은 “영 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135회 강좌를 통해서도 광주 시민인문학은 인문적 사유와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다양한 강좌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곤한 일상 치유하는 ‘예술의 힘’

영암군청년센터 ‘청년 아트 힐링 클래스’ 9일까지 참가자 모집



영암군청년센터에서 열린 지난 ‘청춘 클래스’ 모습. 〈영암군 제공〉

캘리그라피 과정은 총 8회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이다. 붓글씨의 기초부터 감성을 담은 표현까지 단계적으로 익히는 수업으로, 2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달빛청춘마루에서 운영된다. 글씨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과정은 ‘아크릴화 그리기’와 ‘캘리그라피’ 두 가지로 구성됐다. 두 과정 모두 영암군에 거주하는 19~4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과정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9일까지 달빛청춘마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아크릴화 그리기는 미술 경험이 없는 청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하루 체험형 수업이다. 짧은 시간 안에 한 점의 작품을 완성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업은 2월 14일 삼호청소년문화센터와 21일 영암 달빛청춘마루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비 무료. /장혜원 기자 hey1@

불편 줄여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

ACC, 수어 통역·공연시 자막 운영 등 개선 과제 19건 선정



ACC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ACC 제공〉

시설, 서비스, 콘텐츠 등 개선 통해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을 구현한다.

올해 개관 11주년

이 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숙, ACC)은 시설 보완뿐 아니라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 등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ACC는 ACC재단(사장 김명규)과 함께 접근성 개선 연구모임을 매개로 모두 19건의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최근에는 지역장애인 전문가 7인을 초청해 자문 회의도 열었다.

먼저 시설(물리적 접근성 확대) 분야에는 5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모두를 고려한 시설 및 디자인 개선, 휴게 지원 공간 효율성 제고, 무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키오스크, 도어벨 등을 보완하고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서비스 접근성 제고) 분야에는 전시·공연·교육 전반에 3D 촉각형 전시 자료 제작·제공 등이 포함됐다. 음성해설, 수어 통역, 공연 시 자막 운영, 공연 전 비상 대피 안내 수어 자막 및 영상 안내 등 무장애 요소 단계적 도입 등 8가지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장애 유형별 ACC 투어 감상 프로그램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확충도 주요 과제다. 모두 6가지인 프로그램 확충에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반영한 중장기 기획이 담겨 있다. 또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및 전시 관람 행사, 휴관일 관람 행사 추진 등도 반영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안동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특이ティ적체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흔한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멕이활동, 서식굴, 풍동여사, 업남계,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컨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